고사리철, 중산간 도로에선…

갓길과 안전지대 불법 주차 차량 점령 '눈살'
고사리 있을 것 같은 곳 인근 제멋대로 주차
차량 흐름 방해… 무단횡단에 아찔한 상황도

본격적인 고사리철을 맞아 도내 중산간지역 곳곳이 고사리 채취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채취객들이 갓길과 안전지대 등에 무분별한 주차를 일삼으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일대. 왕복 2차선 도로 한쪽에 설치된 안전지대 노면표시 위에는 차량 10여 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멘 고사리 채취객들은 주차된 차에서 내려 인근 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안전지대는 교통이 복잡한 곳이나 정류소 따위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로에 빗금 등으로 표시한 곳으로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는 해당 안전지대의 사방 10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채취객들은 고사리가 있을법 하다고 생각되면 그곳의 주차 가능 여부를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있었다.

안전지대뿐만 아니라 양옆 길 가장자리도 채취객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독차지했다. 이에 운전자들은 좁은 도로 사정으로 양방향 운행조차 어려워했으며,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아슬아슬한 통행을 했다.

심지어 일부 채취객들이 반대편 숲길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보행자를 발견한 한 운전자가 놀라 급제동을 걸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급제동과 함께 경적을 울려댔으며, 차들이 내달리는 도로 한편에 앉아 캐논 고사리를 정리하는 등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는 채취객들도 있었다.

60대 도민 A씨는 "고사리 채취객들 중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간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다"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점은 이해하나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곳에는 주차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30대 도민 B씨는 "어제(13일) 5·16도로를 지나다가 옆 길가에서 고사리 채취객이 불쑥 튀어나와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며 "고사리철만 되면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고사리를 캐려는 사람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도로 안전지대를 점령하고 있다. 김채현기자

오름 휘감은 꽃가루 14일 제주시 연동 한 오름에 많은 양의 꽃가루가 날려 오름 전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70만명대 무너진 제주, 석달째 인구 감소

3월말 기준 전달보다 330여명 줄어든 69만9251명 기록

제주지역 인구 감소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4일 제주도가 발표한 인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제주지역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7만3103명과 외국인 2만6148명 등 69만9251명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외국인은 226명 늘었지만 주민등록인구는 562명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2900여명이 감소한 67만5000여 명에서 매달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70만13명으로 가까스로 70만명대를 유지했던 제주 총인구는 석 달 연속 외국인 인구가 늘었는데도 주민등록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70만명대 재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주민등록인구 48만9939명, 외국인 1만6911명 등 50만6850명이며 서귀포시는 주민등록인구 18만3164명, 외국인 9237명 등 19만2401명이다.

제주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가 전달보다 384명 줄었고 읍면동별론 일도2동이 100명이나 줄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총인구 성별로는 남자 35만2326명, 여자 34만6925명으로 남성이 5000여명 많다. 주민등록인구로는 남자 33만6826명, 여자 33만6277명으로 비슷했지만 외국인 남자가 4900여 명 많아 총인구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인구가 줄고 있지만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다. 제주지역 세대수는 제주시 22만4793가구, 서귀포시 8만8833가구 등 31만3626세로 전달보다 322세대가 늘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천지연폭포에 '먹이 주기 금지' 안내판

서귀포시 "새 먹이 주기 등 관람객 접촉 AI 우려"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인 천지연폭포 매표소 인근에 새 먹이 주기를 삼가 달라는 안내판이 등장했다. 주변 기념품점에 먹이용 사료를 판매하는 등 인위적인 새 먹이 주기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본보 3월 19일 자 5면**)이 일면서다. >> 사진

14일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에 따르면 '먹이 주기 금지 안내'판은 매표소 앞 물가 인근에 설치됐다. 평소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 새들이 몰려다니고 관람객들이 먹이를 던져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새들이 천지연폭포 자연 환경을 이용해 먹이 활동이 가능한데도 사료 등 무분별한 먹이 공급이 행해질 경우 새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서귀포시는 이번 안내판에 "관람객들의 먹이 주기 등 접촉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먹이 주기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시는 안내판 부착과 함께 주변 기념품점의 새·물고기 먹이용 사료 판매도 중단시켰다고 했다.

관광지관리소 측은 "AI 감염 예방과 더불어 천지연폭포를 찾는 철새 등 야생 조류들이 야생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제작하게 됐다"며 "방문객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제주시 회천동에 설립 중인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이다.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기관 명칭 공모에는 제주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30만원, 우수 2명 20만원, 장려 3명 10만원, 아차상 10명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추세에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놀이와 자연 체험 공간으로써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고 창의적인 명칭 선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다혜기자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